

# 이원재 제1차관, “가을태풍,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예방 만전”

## - 1일 원주 도로 건설현장 찾아 현황 점검 및 대비철저 지시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, 홍천 국토사무소장 등과 홍천 연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강풍 및 집중호우 예방 조치 등 대비현황을 점검하였다.
  
- 먼저, 이원재 차관은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은 후, “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”면서,
  - “최근 30mm 이상 집중호우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며, 특히, 강한 바람과 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은 사전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  
  - 아울러 “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지나간 이후에도 비·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느슨해진 지반이나, 약해진 구조물이 작업 재개 시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다”면서 “재개 전 꼼꼼한 안전확인이 꼭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  
- 한편, 이원재 차관은 “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보통 10월까지 발생하며 수년간 이 시기에 발생한 태풍이 여러 차례\* 있었다”면서,
  - \* '19년 링링(9월), 미탁(10월), '20년 마이삭(9월), 하이선(9월), 찬홈(10월)
  
  - “올해에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만큼, 태풍피해가 없도록 긴장감 있게 관리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2022. 9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